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이재명 대표, “검사 독재 청산 대통령 이념전쟁에 암살 테러 발생”

이재명 당대표 2024 신년 기자회견

**무너진 국가비전
민주당이 추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2024 신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

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같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

신년 기자회견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 제안…선거제, 길지 않은 시간 내 말씀”

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 만 읊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

게 목을 겨워서 칼을 치르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과 함께 “운동권 청산이니 자

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 “여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같은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천관리위가 당의 당헌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내의 ‘통합 선대위’ 요구에 대해선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일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 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현실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잊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 송진영 기자

김행 “野 고발한 배임 의혹 ‘무혐의’
출마 않고 당 총력지원”

“부당상속” 의혹 제기에 충격받은
딸 유산…이런 청문회 고쳐야”



답변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9억원 이상의 배임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당당히 수사에 응했다”며 “지난 26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전 위원이 소셜뉴스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 공동 창업자의 주식 인수과정에서 퇴직금을 회삿돈으로 줬다면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2013년 백지선탁 당시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하는 ‘주식 파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은 잇단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결국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지난 해 10월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은 시누이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선 “회사가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매물로 나오는 과정에서 시누이의 주식은 물론 회사 주주들의 주식을 가족이 전량 매입했는데 제3자 주식 파킹이라 는 해괴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라고 거듭 반박했다.

김 전 위원은 자신의 딸에게 부당하게 재산 은닉·상속을 했다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흔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재산 등록 의무가 없음에도 딸은 대중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며 “충격받은 딸은 유산을 했고, 우리 가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다”고 털어놓았다.

/ 임윤성 기자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마약 앞에

나약하지 않아

마약은 환각, 망상에 머리카락과 치아손실, 피부괴사 등 무서운 고통을 줍니다

We're Strong!

마약과 끝낼신호 SOS | 1899-0893



Support On Stop and Start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호화생활 목적 범행”

전씨 “반성”…변호인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 돌려받는 게 피해 회복 방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를 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임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청조 검찰 송치

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 한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씨가)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7

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씨도 공범으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호팀장 이씨는 지난해 3~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의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쟁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송원기 기자



조민,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와 약혼

“올해 하반기 결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와 약혼했다.

조씨는 30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년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 결혼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조씨는 “남자친구는 동갑내기로 정치와 관련도 없고 공인도 아니다”며 “일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라며 “평생을 함께할 친구,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 한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결혼 준비 과정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겠다며 그간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되거나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팔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다. 양가 축복 속에 약혼하게 됐다”며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 서류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회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 이민주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극도로 포악한 범행”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 누릴 수 없어야…영원히 격리”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운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을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심신장애를 강조했다. 실제로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 등에 비

춰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미약이면 형을 줄일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해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는 조씨가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 한 점,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조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 결과 조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케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는 범정에 들어서며 울먹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 신형철 기자

가정서 키우는 3세 아동 전수조사

2천577명에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중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지자체는 이를 중 2천577명과 관련해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4분기부터 3세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양육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백경호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배현진 습격범, 범행 직후 이유 물자 ‘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

배 의원 수행비서 “습격범 부모, 경찰서에서 ‘이재명 피습 모방한 듯’ 말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마구 폭행한 중학생 A군이 범행 직후 습격 이유를 따져 물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사건이 벌어질 당시 배 의원을 수행하던 비서는 30일 연합뉴스에 “사건 직후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아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A군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수행비서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을 폭행하기 전 두 차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으며 신원을 확인했고, 배 의원이 인사를 하려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가격했다. A군은 이 수행비서가 나이를 물어 “15살이다. 족벌(소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A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피습 현장 상황 CCTV 공개

군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이 수행비서는 사건 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도착한 A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연합뉴스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A군 부모가 이런 말을 한 게 맞는지 물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정부, 日외무상 독도 억지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30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을 대 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

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올해로 11년 연속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연설에서 일제강점

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애마보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외교연설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 정윤성 기자



승아 양 추모하는 시민들

‘배승아양 스쿨존 사망사고’ 60대 항소심 시작…형량 달라질까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읍 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 게 하는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7)씨에 대한 항소심이 30 일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고검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형 증거로 수사보고서와 유족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고의 또 다른 피해 아동의 후유 장애 진단, 사설 조회 결과를 향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방씨에게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의 구체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체적 경합법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 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50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 최형철 기자

A군은 앞서 1차 조사에서 사건 발생 2 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았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으로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 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10여차례 공격당하고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응급 봉합 처치 후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27일 퇴원했다.

/ 정윤성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읍 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 게 하는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7)씨에 대한 항소심이 30 일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고검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형 증거로 수사보고서와 유족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고의 또 다른 피해 아동의 후유 장애 진단, 사설 조회 결과를 향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방씨에게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의 구체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체적 경합법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 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50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 최형철 기자

박사과정생에 4년간 월 200만원…대학원에도 대통령과학장학금

과기정통부, 120명 규모 선발계획 공개…내달 13일부터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이공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장학생 12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우수 이공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 처음 대학원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박사과정생 70명, 석사과정생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선정되면 매년 심사를 거쳐 박사과정생에는 최대 8학기 동안 매 달 200만원, 석사과정생에는 4학기 동안 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이나 연구개발(R&D) 과제 참여 인

건비 등 정부나 민간 지원을 받아도 상관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장학생 선발 분야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른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한국 국적 소지자로 전일제 과정생이 대상이며 박사과정은 석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92점 또는 4.5점 만점 기준 4.0 이상이며, 석사과정은 학사 졸업 성적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26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심

증 면접을 거쳐 3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 이영준 기자

‘이선균 비극’ 재발 막으려면…“피의자에 공표금지청구권 줘야”

국회서 입법토론회…“위법 보도 언론사에 징벌적 배상책임도”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재발방지 위한 입법토론회

배우 이선균 씨가 미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공표금지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속 백민 변호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수사기관과 언론 모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변호사는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

을 공표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피의사실의 삭제와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넘게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전례가 없어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8~2018년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47건 중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승원·민병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작년말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공표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배영민 기자

**KB Pay로 결제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성
금융 파트너

**KB Pay로 결제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성
금융 파트너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30609-02066-ADP (23.06.09)

* KB 국민카드

개혁신당 지도부 세종시 방문…“미국 워싱턴DC처럼 만들 것”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31일 세종시를 찾아 출근길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길거리 정책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평동 종합운동장교차로에서 소형화물차인 라보 화물칸을 개조한 연단 위 올라 개혁신당의 세종시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얼마나 빠르게 이전시킬까?”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개혁신당 스텝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일자리는 절단



형 일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조성과 잔류 부처의 이전 등을 통해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처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원내대표는 “세종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소통,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한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서울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세계적인 도시

로 발전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최고위원은 “제 욕심으로는 개혁신당 첫 지역 행보를 전남 순천으로 하고 싶었지만, 이준석 대표께서 대한민국의 정책 중심이자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고, 앞으로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하는 세종시로 해야 한다고 해 오게 됐다”며 “세종시민들이 개혁신당이 정책 행보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소형화물차 라보를 직접 운전해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로 이동, 국토교통부 출입구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대표가 운전한 차량에는 양 원내대표가 동승했다.

/ 황순길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난 흥익표 원내대표

흥익표 “이태원법 재의결시 부결 가능성 22대 국회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흥익표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별법 재의결 시점을 묻는 말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 이 어렵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특검’(김건희 여사 주기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특별법과 함께 재의결 계획이나는 질문에 “하게 되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쳐 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과의 특별법 재협상 여부

에 대해서는 “물론 재협상은 해보겠지만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 등으로 단축한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는 “유예 기간을 고민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흥 원내대표는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인을 통해 ‘대표가 전화해 주면 아마 복당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이라며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먼저 이 전 의원에게 전화해 서 복당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 송원기 기자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 vs ‘전국 대통령’…미묘한 시각차

광복회·보훈부 ‘독립운동가 이승만 학술 대토론회’ 개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그를 둘러싼 인식차가 또다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이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지만 그가 ‘전국 대통령이냐’를 두고는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

광복회와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독립운동가 이승만 학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훈부가 199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시작한 지 32년 만에 464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이날 토론회는 그의 독립운동가 이력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제야 이달의 독립운동 영웅으로 선정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너무 이념에 치들고 정치사에 오염된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

부를 수립한 어른”이라며 “말년에 많은 어두운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암을 했던 면 가지고 그분의 독립운동사까지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광복회는 토론회 말미에 ‘독립운동가 이승만, 정부 수립 대통령!’이라고 적힌 팬플릿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는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론’이 부당하며, 대한민국의 원년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9년이라는 광복회의 입장장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대통령” 이승만을 모시는 것에 반대다. 전국 대통령이 아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정식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모시는 게 얼마나 명예로운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김황식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죽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국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에둘러 내비쳤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 시사회를 다녀왔다면 청중들에게도 관심을 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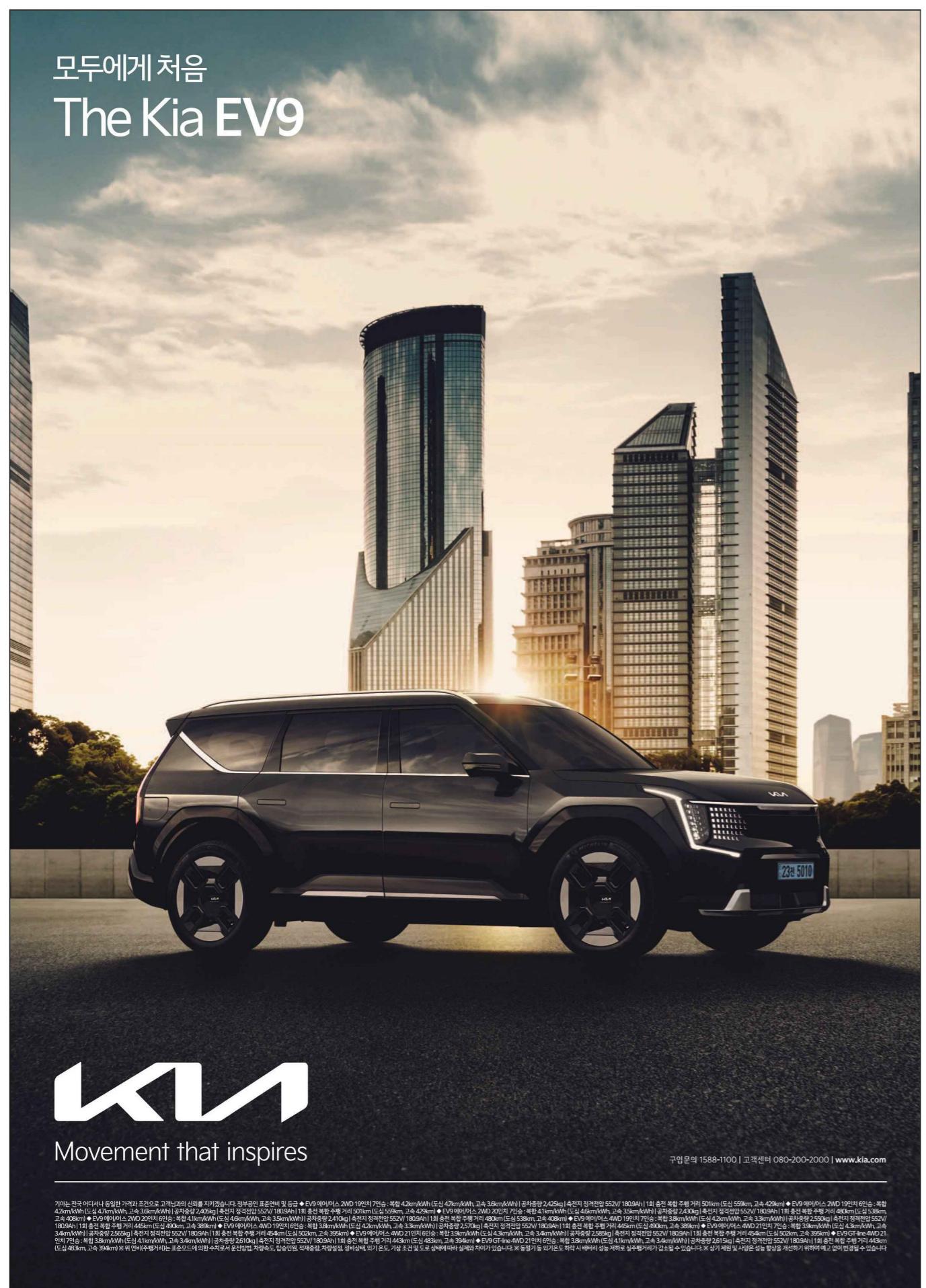
영화는 이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며, 제목 역시 그의 활동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은 다 이 대통령의 업적에 터 잡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농지 개혁을 해서 농노나 다름없던 소작농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으로 자긍심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고, 6·25 침략 때 대한민국을 방위했으며 한미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안전한 가운데 탈전할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물론 이 대통령인들 왜 과(過)가 없겠나. 그러나 평가함에 있어서 공(功)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정확하게 짚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김종현 기자

모두에게 처음 The Kia EV9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짐 검사한다…5월부터 보안검색 재개

상설전시관에 금속탐지기 설치 예정…‘사유의 방’ 안전 강화 방안 검토

올해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설전시관 1층 입구에 관람객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장비를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에서 보안 검색 절차가 이뤄지는 건 2019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박물관은 지난 2017년 국내 문화시설 중에서는 처음으로 보안 검색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 상설전시관 입구에 X-레이 검색기, 문형 금속탐지기 등 관람객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장비가 시범적으로 설치됐고, 이듬해부터 본격 운영됐다.

그러나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면서 전시장 입



2017년 설치된 국립중앙박물관 보안검색대 모습

장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9년 중순 장비를 철거했다.

보안 검색 재개는 최근 국내 주요 시설에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이 확인되는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데 따른 예방 조치

라는 게 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도 있었던 만큼 관람객과 유물의 안전을 위해 기존 장비를 활용해 보안 검색을 재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설전시관 입구에는 X-레이

이 검색기와 문형 금속탐지기가 2대씩 설치될 예정이다.

소지품이 없거나 물품 보관소에 맡기는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입장할 수 있도록 문 형태의 탐지기를 1대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 박물관 측은 물품 보관함도 늘릴 방침이다. 박물관은 대표 공간인 ‘사유의 방’ 전시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문을 연 ‘사유의 방’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이 유리 진열장 없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박물관 측은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최진만 기자



피의자 카드 빼앗는 김민규 경위

“네 신용카드 아니지?”

편의점서 발동한 형사의 촉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 썰미로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접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

드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에 들렀던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A씨가 불안해하며 담배를 보루째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범행 하려던 A씨에게 김 경위는 “이거 당신 카드 아니죠?”라고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

/ 송진영 기자

도망가려는 A씨를 막아선 김 경위는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차례에 걸쳐 13만5천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

며 “피의자를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심검문을 했고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이화영 재판부 “법관 변동 가능성 커”…다음 재판 4주 뒤로 지정

1년 3개월째인 李 뇌물 혐의 등 재판,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 모두 이번 인사이동 대상이다.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변동될 경우 공판갱신절차 방식에 따라 항후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검찰 측은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판갱신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간략하게 간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간이로 한다면 (당일) 서증조사가 가능한데 변호인 측이 (그동안 진행한) 증인신문 녹취록을 재생해야겠다는 의견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께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피고인 입장을 배려해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기일 외에 검찰과 따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법정에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혀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 이준영 기자

아내 골프채로 폭행 혐의 전 야구선수 정수근 검찰 송치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의 이마를 1회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가정폭력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애초 남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바꿔 최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에 골프채가

사용된 점, 피해자 이마에 찰과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 서종익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1심 중형에

유족 “검찰에 항소요청 않겠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특별법에 따른 형량은 신고형과 선고형 사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씨의 항소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까지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지난 24일 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 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 황순길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대로운 기업의 기회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체채권 매입면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후 저활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코 선박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	---	--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인도 해군, 아라비아해 '해적 피랍' 이란 어선 2척·선원 연속 구출

인도 해군이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된 이란 어선 두 척과 선원을 잇따라 구출했다.

30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와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해군 순찰함 수미트라의 특수부대원들은 전날 밤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 코치 서쪽으로 1천574km 떨어진 아라비아해에서 해적에 납치된 이란 선적 어선 '알 나이미'를 구출했다. 특수부대원들은 무장한 채 피랍 어선에 올라 해적 11명을 제압하고 인질로 잡혀있던 파키스탄인 선원 19명을 구해냈다.

앞서 수미트라호 대원들은 지난 28일



'해적 피랍' 이란 어선 구출한 인도 해군

밤 또 다른 이란 선적 어선 '이맘'을 해적 으로부터 구출했다.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 된 이맘호에는 선원 17명이 태고 있었다.

인도 해군은 지난 26일 밤에는 아덴만에서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쏜 미사일로 불이 난 영국 유조선에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고 인도인 선원 22명을 구하기도 했다.

최근 후티의 잇단 공격으로 미국 주도 다국적군 관심이 홍해로 쏠리면서 인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인도 해군은 2008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해왔으며 해적 활동이 늘자 작년 12월 배치 전함 수를 크게 늘렸다.

/ 송진영 기자



베트남 방문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오른쪽)

필리핀·베트남, '中과 분쟁' 남중국해 협력 확대 합의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30일 체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양국은 이날 '남중국해 사고 예방'과 '해양경비대 협력'에 관한 2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협정에는 해양경비대 간 핫라인 구축과 양국 공동 문제를 논의할 해양경비대 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증시 강세가 자신 때문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증시에 묻어가려는 절박한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와 스팠더드 앤 드푸어스(S&P)500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나스닥지수도 2021년 11월 30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16,212.23에 3.7% 정도의 차이만 남겨두고 있다.

/ 한은수 기자

팜 민 촐 베트남 총리는 "세계와 지역 정세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양국이 단합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 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무시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고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필리핀에 매년 쌀 150만~200만t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 강준성 기자

트럼프, 최근 뉴욕증시 상승세에 "내 덕분...이게 '트럼프 증시'"

소셜미디어에 "내가 바이든에 앞선 여론조사 영향" 주장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도의 상승세도 자신 덕분이라고 주장했다고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뉴욕 증시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선 가상대결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선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때문에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으며 자신이 승리하면 시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자가 상승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 증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증시를 제외한 경제가 꼽찍한 상태라면서 자신이 낙선하면 증시도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증시의 상승세도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전에도 자신이 낙선하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 주장장을 펼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증시 강세가 자신 때문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증시에 묻어가려는 절박한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와 스팠더드 앤 드푸어스(S&P)500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나스닥지수도

2021년 11월 30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16,212.23에 3.7% 정도의 차이만 남겨두고 있다.

/ 한은수 기자

머스크 "인간 뇌에 칩 이식"...뇌-컴퓨터 연결 임상 시작

뉴럴링크 첫 제품 이름은 '텔레파시'... "생각만으로 컴퓨터 제어"



뉴럴링크 로고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29일(현지시간)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어 엑스(X·옛 트위터)에 "어제(28일)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implant)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Telepathy)라고 불린다"라며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그것들을 통하는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을 승인받은 지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회사는 작년 말 경주 척수 부상이나 근위축성성족상경화증(ALS·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이날 이식 결과와 관련해 "초기 결과는 조짐이 괜찮은 뉴런 스파이크 탐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는 회사가 환자의 뇌로부터 기록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위스콘신대 중개신경공학연구소의 공동책임자 킴 루드비히를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럴링크는 뇌에 2mm 미만의 깊이로 칩을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또 다른 BCI 기업인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이 개발한 전자 장치의 이식 깊이보다 더 깊은 것으로 블룸버그는 뉴럴링크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뉴럴링크는 뇌 임플란트를 이미 시도한 블랙록 뉴로테크나 싱크론 등 경쟁사보다는 후발주자로 분류되는데, 임상 시작으로 업계 경쟁이 불붙을지 주목된다.

뉴럴링크는 첫 뇌-컴퓨터 연결을 앞두고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자연을 즐기며 행복을 찾는 일
자연을 지키며 내일을 여는 일
이 모든 것을 위한 우리의 물음

즐거운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복쉼터

**강원랜드의
선한 물음은 계속됩니다.**

2050 탄소배출ZERO와 폐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

"환자 잘 회복중, 뇌에서 기록 얻고 있어"...앞서 동물시험으로 논란

또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스티븐 호킹이 타자를 빨리 치는 타이피스트(typist)나 경매인(auctioneer)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 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첫 단계 목표는 BCI를 통해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앞서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이날 예로 든 스티븐 호킹은 21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을 앓아 평생을 훨체어에 의지한 세계적인 물리학자다.

뉴럴링크의 첫 이식은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 김성호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소중한 분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우리 농축산물로 귀함을 선물하세요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공직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30만원)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주는 농축산물 선물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일반 선물은 5만원 이하만 가능)
- 적용 기간: 2024.1.17[수] ~ 2.15[목] / 30일간
- 부모,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

NH 농협

은행 ELS 판매 중단 잇따라…농협·하나 이어 KB·신한도 동참

“S&P500·닛케이 고점에 소비자보호 필요”…당국 “판매중단 검토” 압박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가연계증권(ELS)’을 당분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2021년 판매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이 올해 들어 현실로 드러나자, 적극적 위험 관리와 자성의 차원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의 취급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 당국의 “ELS 판매 중단 검토” 언급도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향후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이날 오후 비예금상품위원회를 열어 오는 5일부터 ELS(ELT·ELF)를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LS의 기초자산으로 주로 편입되는 스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닛케이225 등 주요 주가지수가 최근 10년간 최고점에 이르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9일 ELS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비예금상품위원회가 H지수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근거로 판매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후 비예금상품위원회 승인을 얻어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역시 이미 지난해 10월 4일부터 원금 비보장형 ELS를 취급하지 않아 사실상 현재 ELS 전면 판매 정지 상

태다.

우리은행의 경우 아직 ELS를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ELS 관련 동향 등에 따라 판매 중단 상품을 늘리거나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의 이런 결정은 무엇보다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공격적 고위험 상품 판매 행태에 대한 비난이 격세졌기 때문이다.

2021년 고점 이후 H지수가 급락하면

서, 올해 들어 19일까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판매된 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무려 2천 296억원의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상품별 최고 손실률은 56.1%까지 치솟았다.

더구나 올해 전체 15조 4천억원,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현재 손실률 추세가 이어진다면 손실액은 6조~7조원에 이를 수 있다.

/ 흥명섭 기자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간담회

유인촌 장관 “방한 관광시장 고부가화 중요 서울 콜림 완화해야”

특허청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기존 산업체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치설계권까지 확대된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뜻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허 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체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체재산 분쟁조정 기관이다.

/ 유정민 기자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방한 관광시장에서 개별 관광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시장별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전략적인 유치 마케팅을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섬세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22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외래관광객 2천만명을 유치해 관광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다양한 콘텐츠를 집중적 으로 알리는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연, 스포츠, 웨니스 등 우리만이 가진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가 많은데, 이런 관광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천 10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서울 콜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양문호 기자

정부, 오는 5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 발표

서울·대전·광주·부산 지원센터, 일반 정비사업 컨설팅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한 박상우 장관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열었다. 올해 5월 중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신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했다. 1기 신도시 지원센터에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 1555-0110)과 대면 컨설팅을 한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 사업 분석과 사업 추진 절차를 컨설팅해준다.

복잡한 정비사업을 쉽게 설명하고, 재

건축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상담해주는 역할이다. 컨설팅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과 법률·금융·회계·개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다음 달 2일 군포, 3일 고양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을 착수한 곳에서는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상담과 공사계약 자문, 분쟁 해소를 지원한다.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한다.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나 전화(☎ 053-663-8320)로 예약한 뒤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원예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 노정현 기자

간편결제·빠른배송 덕에 작년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넘어서

지난해 스마트폰 쇼핑 앱, 간편결제, 빠른 배송 등 쉽고 빠른 쇼핑을 돋는 기술과 서비스에 힘입어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보다 9.0%,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3.9%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조사 아래 처음 절반을 넘겼다.

온라인 부문의 매출 성장세는 매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년 대비 연간 매출 증감률을 보면 온라인 부문이 14.2%, 18.4%, 15.7%, 9.5%, 9.0% 등으로, 같

은 기간 오프라인 부문 매출 증감률인 -1.8%, -3.6%, 7.5%, 8.9%, 3.7% 등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오프라인 쇼핑이 위축되는 사이 간편결제, 빠른 배송 등 온라인 쇼핑을 돋는 기술과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편의점 매출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었다. 작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0.4%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오프라인 매출은 4.5%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 서정미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받는은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합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작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아렉트 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SAMSUNG**BESPOKE 큐브™ Air**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함께 응원합니다

가전을 나답게。

김동연, 일본 아이치현 의원들과 제조업·청년교류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도청 접무실에서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단을 만나 경기도와 아이치현 간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오늘은 계기로 경기도와 아이치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이치현과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치현과 청년 교류를 해봤으면 한다. 현에 적절한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도 실무책임자들과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치현의회 의원단의 다카쿠와 도시나오 의원은 “아이치현은 도요타 본사가



김동연 지사,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들과 우호협력 논의

있는 일본의 제조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IT산업에서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은 만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청년교류는 마침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

데 경기도와 청년교류를 촉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아이치현의회 의원단은 자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돋독히 하자는 내용의 오무라 히데아키 지사 서한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5년 아이치현과 우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청소년,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아이치현에서 개최되는 ‘한국페스티벌 IN 나고야’에 경기도 예술단을 파견하고 있다.

/ 송원기 기자



인천메트로서비지부 노조 파업 돌입 기자회견

인천1호선·서울7호선 18개역 운영사 노조 내달 5~7일 파업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일부 역사를 운영하는 인천메트로서비

노조가 쟁여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메트로서비

스지부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1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인천교통공사가 2021년 10월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를 설립한 이후 약속했던 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수당이 여전히 미지급되거나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회사와 자회사 경영진은 자회사 노동자를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쟁여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메트로서비스는 전체 근무 인원이 359명이며 인천 1호선 30개 역사 중 13개, 서울 7호선 11개 역사 중 5개 운영을 맡고 있다.

또 7호선 부천 구간 11개역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등도 담당하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해 현재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는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설치돼 있고 승객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지하철 이용에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서비스는 파업 기간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이용객 안내와 시설물·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운영 초기부터 서울지하철을 벤치마킹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3개 역사 관리를 공사 퇴직자 등에게 도급 계약 형태로 맡겨왔다.

하지만 특혜 논란과 역사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역사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를 설립했으며 환승역과 규모가 큰 역사는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 민성호 기자

[청소년올림픽] 관람도 식후경…‘K-컬처’에 매료된 외국인들

선수촌 식당가·전통시장·커피 거리 등 ‘올림픽 특수’ 반색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덕에 많은 외국인이 몰리면서 개최 시군 상권이 비수기인데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선수촌이 마련된 강릉원주대학교 인근 교동택지와 유천택지 식당가는 대회 기간 서울 이태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붐비 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들은 저녁이 되면 숙소 밖으로 나와 K푸드를 대표하는 치킨과 삼겹살은 물론 동해안에서 공수한 각종 해산물로 만든 지역 대표 요리들도 맛보며 추억을 쌓고 있다.

대형 헬스·뷰티 매장에서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장바구니에 잔뜩 넣는 외국인들의 모습에서 K-뷰티에 대한 높은 인기도

엿보인다.

유천동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상인은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손님이 뜸한 시기 인데 외국인 관광객들 덕에 하루 매출이 40만~50만원은 늘었다”고 반색했다.

먹거리도 즐기고 문화도 엿볼 수 있는 중앙시장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수제 어묵 크로켓, 닭강정, 오징어순대, 호떡 등 생경한 맛과 멋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피져 스케이팅 경기가 열린 30일 점심 아이스아레나 인근 낙지요리점은 중국, 대만 선수단이 몰려 한국의 매운맛을 땀 흘리며 즐겼다.

커피 도시 강릉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안목해변 카페 곳곳에서는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시민과 외국인들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음료와 함께 언 몸을 녹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황태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평창 대관령면도 뜨끈하면서 시원한 국물 맛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유명 황태해장국 식당들은 예약 없이는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붐볐고, 식당 앞으로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차량 통행이 힘들 정도였다.

평창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인 오삼불고기도 남다른 매운맛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외국인들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죽헌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며 “아직 1월 관광객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20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오죽헌을 찾은 외국인들은 한복 체험관에서 한복을 직접 입어보거나, 문화해설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모자(母子) 화폐 인물을 배출한 배경을 접하며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재환 조직위 대변인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외국 선수와 관광객이 K-Pop뿐만 아니라 한복 체험, 봇글씨 쓰기, 널뛰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가 많다”며 “경기도 보시고,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찬 문화올림픽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 최준용 기자

“별구경 맛집으로 오세요”…대구 달서 디지털 별빛관 문 열어



디지털 별빛관

대구 달서구는 가족 친화형 디지털 놀이터인 ‘달서 디지털 별빛관’을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별빛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3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

산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달서별빛캠핑장 내 뚝딱뚝딱 공작소(114㎡)를 리모델링 한 것으로 체험·실감 등 2개의 미디어 공간이 조성됐다. 체험 공간은 모션스캔·모

/ 오문섭 기자

션월·모션블레이드·모션블록·모션캐치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쌍방향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실감 공간에서는 별의 비행·행성 속으로·별 내리다·은하수·별 스케치 등을 주제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각종 영상을 볼 수 있다. 달서구는 디지털 별빛관 개관을 계기로 향후 천문·우주 분야 공립전문과학관인 ‘별빛 천체과학관’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나 디지털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속 디지털 체험 공간을 조성해 스마트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 오문섭 기자

원주시,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 모색…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원강수 시장,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서 해외 마케팅 지원 논의

강원 원주시가 의료기기의 중동 시장 개척에 나섰다.

시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열리는 제4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Arab Health 2024)에 참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함께 강원 의료산업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Arab Health 2024에 강원공동관을 운영 중인 시는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17개 사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시회 첫날인 지난 29일 강원공동관을 방문, 참가 기업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기업 대표와 바이어 등 5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중동시장의 현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한 원강수 원주시장

지 반응과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제품 개발만으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개발(R&D)·인허가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김현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건
강
한
정
치
문
학
를
이
를
나
다

건
강
한
정
치
후
원
금
이
는
비
유
한
토
양
에
서
울
창
한
숲
을
이
루
듯
이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액은 25%까지)
-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세청 112)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우리금융그룹

새
해
아
침
에쓰
는
편
지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그 순간, 자기 소원만 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 많이 웃게 해주세요”

“우리 민서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금융그룹도

우리를 위해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사장님들이 더 자주 웃게 해주세요”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광주 출생아 0세부터 17세까지 총 7천400만원 지원받는다



광주시 출산·보육 업무보고회

광주 지역 출생아는 0세부터 17세까지 1인당 총 7천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1명 당 0세에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 급여(1천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

1천520만원을 받는다.

1세에는 부모 급여(600만원)와 아동수당(120만원) 등 720만원, 2~7세에는 아동수당 720만원을 받아 7세까지 2천960만원을 받게 된다.

국비 또는 국·시비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상당수 시도에서 비

원 증가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을 더하면 모두 15종 7천400만원을 받게 된다.

국비 또는 국·시비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상당수 시도에서 비

슷한 규모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출생·보육 분야 업무보고회를 열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7400+' 계획을 발표했다. 현금성·메디컬·돌봄·일생활 등 가족 지원 '4대 케어'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광주시는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 등 지원사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 포함) 지원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지난해 개소로 좋은 반응을 얻은 공공 산야 어린이 병원도 2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체감도 높은 출생·보육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엄마 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2022년 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촉구 집회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해녀·주민 승소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5명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며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했다. 각각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이뤄진 해당 고시는 2024년 까지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

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은 증설 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하수처리장에서 100m 거리의 용천동굴은 적지 않고 600m 떨어진 당처물동굴만 기재했으며, 하수처리장 증설은 진동과 악취를 유발하고 오·폐수를 배출함에도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기재해 허가를 신청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 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17년 착공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약 6년 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재개됐다.

/ 이찬우 기자

'5·18 폄훼' 논란 前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신청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행위 등으로 인해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 전 의장은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4일 시의회의) 불법적인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오늘 효력정지 거부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한 것 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

한민국이 어느 순간 탄핵공화국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의장은 앞서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전 의장은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여야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허 전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앞으로 2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차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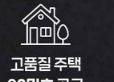
/ 임수영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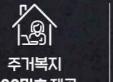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람을 향한 더 나은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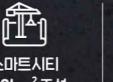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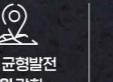
고밀집 주택
80만호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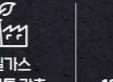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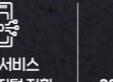
스마트시티
250km² 조성



국가균형발전
지원 강화



온실기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청렴고객만족, 임전
최고통금 달성

경남도, 청소년들 '디지털 거리두기' 돋는다…치유캠프 등 지원



청소년 스마트폰

경남도는 이러한 세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가 미디어 기기에 과다 의존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 부모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센터는 국립 대구청소년디딤센터와 함께 만 13~18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

내달 16일까지 치유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용은 10만원(사회적 돌봄대상 무료)이다.

복지센터는 올해 연중 미디어 과의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 치료에 필요한 심리 검사비, 약제비, 병원비도 지원한다.

일반인은 40만원, 사회적 돌봄 대상은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최해원 기자

국악 트로트 가수 김다현,

경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판소리를 전공한 김양은 2020년부터 다양한 트로트 예능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

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1명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 금액 30% 이내에서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경남도와 18개 시·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62억원에 이른다.

동 훈장 김봉곤 씨 막내딸이다.

/ 노승윤 기자

울산경찰, 설 연휴 전통시장 8곳 주변 주·정차 허용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기간은 2월 3~12일이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 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

/ 김민수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연금, 어디서 할까?”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든 연금 신한에 물어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 23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최초 업무협약 체결 ·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으시라고 연금수령 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퇴직연금 중요 알림과 정보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카카오톡 전용채널
- 평생소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SOL 연금라운지 · 신한은행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 【신한 연금라운지】신한은행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연금 상담 전용 공간
- 일산: 11월 22일 오후 (031-812-3655, 주영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4층)
- 노원: 11월 27일 오후 (02-6224-5499,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3층)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개인형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5354-1호(2023.11.17-2024.8.3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행 신한은행

청소년올림픽 피겨 신지아, 값진 은메달…우승은 라이벌 시마다

한국 피겨의 차세대 간판 신지아(영동중)가 청소년올림픽 여자 싱글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신지아는 30일 강원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 2024)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3.45점, 예술점수(PCS) 61.90점, 합계 125.35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66.48점)를 합한 최종 총점 191.83점으로 '라이벌' 시마다 마오(196.99점·일본의) 뒤를 이었다.

2012년 시작한 청소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딴 건 2020년 대회 유영(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신지아의 연기는 완벽했다. 17명의 선수 중 15번째로 은반 위에 선 신지



열연하는 신지아

아는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낫 어바웃 에인젤스(Not About Angels by Birdy)의

선율에 맞춰 힘차게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첫 연기 과제인 더블 악셀을 완벽

하게 뛰어 트리플 루프, 트리플 살코,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모두 무결점으로 연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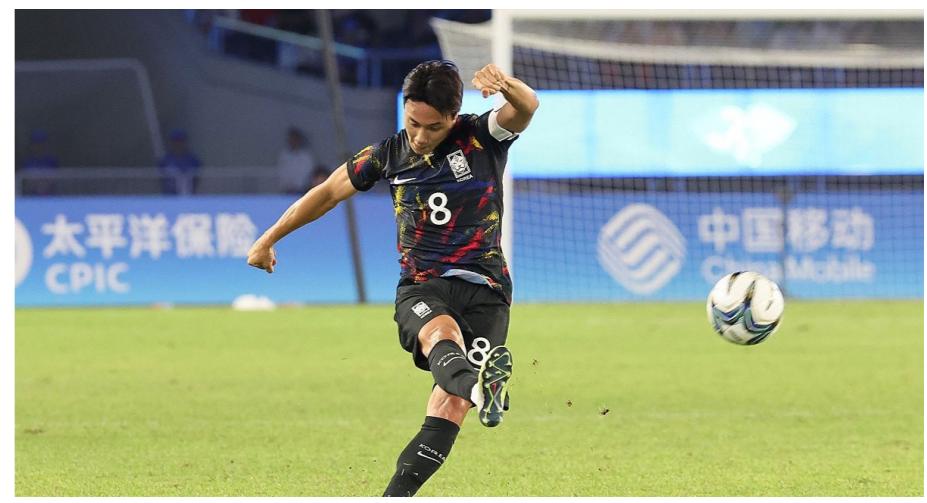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우아하게 수행한 신지아는 가산점 10%가 붙은 후반부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기를 이어갔다.

그는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뛰었고, 이후 트리플 플립-더블 앤셀 시퀀스 점프와 트리플 러츠를 모두 실수 없이 수행했다.

모든 점프를 뛴 신지아는 힘차게 연기를 이어갔다. 그는 우아한 플라잉 카멜 스핀과 코레오시퀀스로 관중들의 박수를 끌어낸 뒤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유성(평촌중)은 프리스케이팅 117.89점, 총점 181.53점으로 4위에 올랐다. 동메달은 일본 다카기 요(183.20점)가 차지했다.

/ 이은정 기자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백승호

잉글랜드 2부 베밍엄시티, 미드필더 백승호 영입 공식 발표

2022 카타르 월드컵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 등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던 미드필더 백승호(26)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웹피언십(2부) 베밍엄시티에 입단했다.

베밍엄시티는 30일(한국시간) 백승호와 2026년 6월까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백승호는 독일 2부 디辱슈타트에서 뛰다 K리그1 전북 현대로 이적한 202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유럽 무대로 나서게 됐다.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는 스페인 지로나와 2군 팀인 페랄라다를 거쳐 2019년 디辱슈타트

에 입단해 독일로 무대를 옮겼고, 2021년 부터는 전북에서 활약했다.

전북에선 3시즌 동안 K리그1 82경기를 포함해 총 106경기를 소화하며 2021년 K리그1 우승, 2022년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 등에 힘을 보탰다.

국가대표로는 2019년부터 15경기에 출

전해 3골을 기록했고, 이 중 하나가 2022년 12월 열린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과의 16강전(한국 1-4 패) 중거리포였다.

지난해 9~10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팬 24세 이하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발탁돼 팀의 주장을 맡아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베밍엄시티에서 등번호 13번을 달고 뛰게 된 백승호는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 팀의 일원이 돼 정말 행복하다. 무척 기대되며, 어서 시작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영국에 오는 것이 내 꿈 중 하나였다.

베밍엄이 내게 관심을 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다”면서 “(토니 모브레이)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편안했고, 여기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 유현숙 기자

캡틴 오지환 “시프트 제한, LG에 유리…불펜은 텁스 느껴질 것”



팬에게 사인해주는 오지환

프로야구 LG 트윈스 3년 차 주장 오지환(33)은 2024시즌 더 무거워진 완장의 무게를 느낀다.

1994년 이후 29년 만의 우승을 달성한 LG가 왕조 시대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첫 시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오지환의 시선은 자신이 서 있는 곳뿐 아니라 그라운드 전체를 향한다. 내·외야는 물론 투수들까지 하나로 아울려야 하는 것이 주장의 책무다.

30일 스프링캠프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오지환은 “책임감이 많이 따

른다”면서 “안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후배들과 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는 ‘큰 그림’을 공유했다.

먼저 올 시즌부터 적용되는 ‘수비 시프트 제한’이 LG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시프트는 철저히 당겨치는 타자를 봉쇄하기 위해 아예 한 쪽을 비워두고 내야 수를 1, 2루 사이 또는 3루와 유격수 사이에 배치하는 전술이다.

오지환의 근거는 10개 구단 최강을 자

랑하는 LG 센터라인에 있다.

유격수 오지환을 비롯해 포수 박동원, 2루수 신민재, 중견수 박해민이 버티는 센터라인은 공수 모두 높은 경쟁력을 뽐낸다.

결국 시프트가 사라지면 야수 개개인의 수비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LG가 우위를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지환은 “우리 팀에 수비 범위가 넓은 친구들이 많다. 특히 해민이 형, 저, 민재, 동원이까지 센터라인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마무리 고우석이 미국프로야구(MLB)에 진출하고 불펜 함덕주가 부상으로 이탈한 투수진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지환은 “지난해 42차례의 역전승은 누군가가 나오더라도 후보 선수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올 시즌 ‘템스’(두꺼운 선수층)라는 것을 정확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오지환은 “다음 플랜은 2, 3년 더 하는 것”이라면서 “144경기, 1천 이닝 다 뛴다는 생각으로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감독 없는 전지훈련’ 프로야구 KIA 선수단 무거운 ‘호주행’

프로야구 KIA 김종국 전 감독이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30일 전지훈련을 떠나는 KIA 선수들의 발걸음을 무거웠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KIA 웹피언스필드에 집결한 선수들은 전지훈련지인 호주행 비행기에 실을 훈련 장비를 옮기기 위해 분주했다.

양손 가득 짐을 나르며 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나, 해외 전지훈련을 앞둔 선수단의 밝은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

김 감독 사건으로 취재진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일부 선수들은 짐을 옮기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주 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서둘러 구단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훈련 장비와 개인 짐은 부피와 무게 탓인지 짐을 신는 별도의 화물차량에 실렸다.

KIA 심재학 단장도 이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구단 버스에 탑승하기 직전 격려하는 약수 정도만 나눴다.

/ 신재일 기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응 IOC 부위원장과 올림픽 발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과 만나 올림픽 유산을 지속해 활용하는 방안과 올림픽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먼저 IOC 등의 노력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응 부위원장은 문체부와 2024 강원 조직위원회, 강원도, 대회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대회가 성공하고 뜻을 모았다.

/ 노건우 기자

롯데칠성음료

청량한 이 순간,
칠성사이다로부터

이름 잘못 팔았다 죽은 사람이 된 남자…영화 ‘데드맨’

봉준호 ‘괴물’ 집필 하준원 감독 데뷔작…바지사장 세계 그려

“이름이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저축은행 파산으로 빚더미에 앓게 된
만재(조진웅 분)가 장기 밀매 현장을 찾
았다가 신장 대신 이름을 팔라는 노인의
말을 듣고는 되묻는다.

한 남자는 만재에게 다가와 “실제 차는
폐차돼도 넘버만 살아 있다면 제값을 받
는 셈”이라고 설명해준다. 만재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서류상 대한민국
국민인 그의 명의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만재는 이른바 ‘바지 사
장’ 업계에 발을 담근다. 신분 드러내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만재의 이름 뒤에 숨어
사업을 하거나 검은돈을 굽린다. 만재는
무늬만 대표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내
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은다.

하준원 감독이 연출한 ‘데드맨’은 뉴스
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바지 사장
의 세계를 그린 스릴러물이다. 이름 한번
잘못 팔았다가 순식간에 죽은 사람이 되
어 버린 만재가 신분을 되찾으려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를 큰 줄기로 한다.

전설적인 바지 사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만재의 발목을 잡은 이는 그가 이름을 벌
려준 한 벤처 회사의 진짜 사장이다.

그가 회삿돈 1천억원을 가로채는 바람
에 만재가 죄를 대신 덮어쓰고 도망자 신
세가 된다. 급기야 만재가 죽었다는 뉴스
까지 보도된다.

하지만 그에게 의문의 여인 십 여사(김
희애)가 손을 내밀면서 누군가가 짜놓은

이 판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심 여사는 만재가 횡령했다는 돈이 정
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라 보고 사건
의 배후를 함께 쫓는다. 바지 사장으로 살

다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젊
은 여자 희주(이수경)도 여기에 합세한다.
이들과 대적점에 선 유력 정치인, 정치
깡패, 일명 ‘쩐주’ 등도 속속 등장하며 진
실을 쫓고 숨기려는 쪽의 대결은 팽
팽해진다. 돈 때문에 얹고 설킨 사람들

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만큼, 추리극
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
각본을 공동 집필한 하 감독의 연출 데뷔
작이다. 그는 돈을 받고 이름을 팔는 사람
들을 5년에 걸쳐 취재해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 덕분에 그간 말로만 들었던 바지 사
장 세계가 생생히 표현됐다.

그러나 신선한 소재의 힘을 끝까지 유지
하지는 못한다.

초반부 스토리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
지만, ‘기승전정치’라는 뻔한 전개 때문에
갈수록 맥이 빠진다. 등장인물 대부분이
캐릭터가 강한 면이 있어 좀처럼 자연스
레 섞여 들지 못하는 면도 있다.

설 연휴 개봉하는 한국 영화 중 유일하
게 스플릿 장르라는 점은 차별점이 될 수
있다. 이 영화는 유해진·윤여정 주연의
‘도그데이즈’, 나문희·김영옥 주연의 ‘소
풍’ 등 휴먼 드라마 작품들과 맞대결할 예
정이다. 2월 7일 개봉. 108분. 15세 이상
관람가. / 정희수 기자



그룹 2am

2am, 발라드 ‘사랑은 먼 길을 돌아온 메아리 같아서’ 발표

보컬 그룹 2am(투에이엠)이 30일 오
후 6시 발라드 신곡 ‘사랑은 먼 길을 돌아
온 메아리 같아서’를 발표한다고 발매사
언디파인드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사랑은 먼 길을 돌아온 메아리 같아서’
는 인연이 끝났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도 재회와 이별을 반복하는 애처로운 연
인을 묘사한 노래다.

언디파인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한 번
쯤 사랑하는 이와 겪은 현실적이고 애달
픈 순간이 시적인 표현의 가사로 큰 공감

/ 황유진 기자

2am, 발라드 ‘사랑은 먼 길을 돌아온 메아리 같아서’ 발표

보컬 그룹 2am(투에이엠)이 30일 오
후 6시 발라드 신곡 ‘사랑은 먼 길을 돌아
온 메아리 같아서’를 발표한다고 발매사
언디파인드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사랑은 먼 길을 돌아온 메아리 같아서’
는 인연이 끝났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도 재회와 이별을 반복하는 애처로운 연
인을 묘사한 노래다.

언디파인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한 번
쯤 사랑하는 이와 겪은 현실적이고 애달
픈 순간이 시적인 표현의 가사로 큰 공감

/ 황유진 기자

배우 박해수 할리우드 진출

아마존프라임 ‘버터플라이’ 캐스팅



박해수

정보요원 데이비드 정(데니얼 대 킴 분)
과 그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혐의
요원 레베카의 추격전을 그린 시리즈
다. 동명의 만화가 원작이다.

박해수가 맡은 역할은 아직 구체적으로
로 알려지지 않았다. 배역은 특별출연
이며, 극 중 영어 대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2007년 연극 ‘안나푸르나’로 데뷔한
박해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
임’에서 최후의 2인 조상우 역으로 인
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다.

제74회 에미상에서 남우조연상 후보
에 지명됐으며, 미국의 4대 메이저 예
이전시 중 하나로 꼽히는 UTA와도 계
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 최진혁 기자

이영애 20년 만에 ‘장금이’ 연기한다

‘의녀 대장금’ 주연

이영애가 ‘대장금’ 종영 20년 만에 같은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새 드라마로 돌아
온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는 30일
“드라마 ‘의녀 대장금’의 주연배우 이영애
를 작년 6월 캐스팅한 데 이어 드라마 작
가와도 계약했다”며 “오는 10월 첫 촬영
에 들어가 내년 초에 방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녀 대장금’은 가제이며 향후 제목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편성 시기와 방
송 플랫폼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판타지오는 “‘의녀 대장금’은 2003~
2004년 방영된 MBC의 드라마 ‘대장금’에
이어 의녀가 된 장금이(서장금)의 일대기
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4부작 대하드라마 ‘대장금’은 최고
57%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



을 일으키고 외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
은 작품이다. 조선시대 궁녀 서장금이 의
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성장기를 다룬
다.

1990년대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이영애는 ‘대장금’으로 2003년 MBC 연기
대상 대상을 받았고, 한류스타로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 오정민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체크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월별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T가 함께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KT

KT 하이오더

- 테이블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KT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 직영 설치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상품문의 1588-0114